2011 EXHIBITION PREVIEW `국내 기획전과 개인전, 지역 비엔날레

EXHIBITION

2011 / 02 / 07

김수영

우순옥 <오래된 미래- 나의 아름다운 빈 방> 가변설치 2006

12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는 임응식의 <동상이몽> 1946

2009여성미술비엔날레 전시작 뤼실 베르트랑<누가 누굴 먹는걸까?> 2004

국내 비엔날레
올해 미술계는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비엔날레들로
풍성한 가을을 맞을 듯하다. 차례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(9.
2~10. 23 광주비엔날레 전시관, 광주 시내 일원),

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(9. 21~10. 30 청주문화산업단지 일원),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(9. 23~ 10. 28 이천 여주 광주),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(10. 1~30 인천)가 열릴 예정이다.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건축가 승효상과 중국작가 아이웨이웨이가 공동 감독을 맡아 화재를 모았으며, '도가도비상도(ï ^8 -)'라는 주제 아래'21세기 디자인의 역할'에 대한 고민을 전시로 풀어 낼 계획이다.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(전시감독 정준모)는 '유용지물'()ëæi주제로 현시대에 유효한 공예의 새로운 가치를 탐구한다. 본전시와 더불어 초대 국가 핀란드의 디자인과 공예를 소개하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. 제6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(전시감독 이인범)는 'Cera MIX'-를 주제로 타장르와의 소통을 통해 도자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겠다는 계획이다. 2011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아직 세부 윤곽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, 커미셔너로 뉴욕MIT미술관 디렉터인 제인 파버가 선임될 예정이다. 지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양은희 전 커미셔너도 지원사격할 예정으로, 올 비엔날레가 국제적 수준의 대형 전시로서 한층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.